

대학 미술계 학과명을 통해본 미술교육의 총체적 문제점

김해성

부산대 미술학과 교수

□□□

1

우리나라 대학의 미술교육을 논할 때 거의 원론적인 차원에서 다반사로 거론되는 것을 추려보면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실기와 이론의 균형문제, 민족 내지 전통미술의 재창출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문제는 우선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가 되어서 대학마다 특성있는 교육목표의 설립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실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실기와 이론의 균형문제도 교과과정의 내용에서 과목의 배합도 중요하지만 교수방법에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점은 민족미술 내지 전통미술의 재창출 문제에서도 다를 바 없다.

이 글은 이런 점에 유념하여 가급적이면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 일차적으로 드러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소 단면적이기도

하겠지만 교육부에 집계된 학과명, 학과수, 학교수 등 기본적인 자료에서 엿보이는 잠재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 자료는 명시적인 것에 그치고 있기에 자칫하면 형식적인 명분론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으나, 현상적인 검토사례가 드물었기에 검토 자체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미술교육은 실기에 의한 창의성 내지 감수성 개발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해결에 전형화된 틀은 있을 수가 없다.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의 틀이 매우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전제이다.

2

해마다 대학에 들어오는 미술계 지망자는 7,900명(92년도 기준)을 넘어 8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미술학과를 제외하면 1/4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이 서양화, 동양화, 조소 등 개인적 창작을 위주

로 하는 순수미술계열이고, 그 나머지가 대부분 디자인, 공예분야로 이른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적용미술계열이다. 그러나 적용미술계열의 지방자가 순수미술계열보다 배수로 많은 것은 경제정책을 겨냥한 정책적인 유도도 있었겠지만, 미술의 효용성은 물론 사회적 기능과 그 가치가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면이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미술계의 경우 70여 개의 대학에 200여 학과가 실제로 있는 셈인데 이것을 같은 학과명끼리 묶어보면 45개가 된다. 그러나 45개의 학과도 실제로 학과명칭이 다르게 표기되었을 뿐 동일한 학과가 많아서 정작 영역별로 분류해보면 미술계의 학과는 30개도 채 못 된다. 미술계 학과가 있는 70여 개의 대학 중에서 미술대학이라는 체제에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10개 정도의 대학이고, 나머지 중 21개 대학은 대부분 예술대학 내지 다른 단과대학 속에서 '미술학과'로 개설되어 미술학과라는 명칭과 겹치지 않게 미술학부 성격을 띠고 있어 미술학과 명칭 아래 전공별로 나누어 모집하고 있다. 미술학과 아닌 다른 나머지 대부분은 인문대학·공과대학·사범대학 등 단과대학 체제 속에서 개설되어 있다. 10개의 미술대학조차 모두가 종합대학교 안에 속해 있어서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학사운영 및 관리가 종합대학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독립된 미술대학이 전혀 없는 현실적 여건도 부분적으로 잠재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볼라도 결과적으로 현재 드러난 미술계열의 학과명칭을 우선 보면 그 이중적 혼란과 특성의 애매함이 다른 계열대학보다 심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에서 집계한 학과명(〈표 1〉 〈표 2〉 〈표 3〉 참조)을 보면 나열된 학과명 중에 유사한 것이 너무나 많다. 비록 학과목이 유사할지라도 명기된 이름 그대로 실제 학과의 교과내용과 그 특성이 조금만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명칭의 이중적 혼란은 있을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산업미술과

와 산업미술학과의 경우, 학과명이 유사하지만 다른 학과임이 분명하다면 그 차이는 '산업미술'과 '산업미술학'에 있고 혼란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 두 학과가 표기만 다를 뿐 실제로는 동일한 학과라면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경우를 가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산업미술'을 전공으로 하는데 편의상 학교에 따라 산업미술'과'라 하기도 하고 산업미술'학과'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는 타계열 대학에서 통칭 학과로 불리는 것을 일부 미술계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에서 연유한 혼란이다.

또 하나의 경우는 미술계열 일부에서 '산업미술'

〈표 1〉 순수미술계열 학과명

(가)		(나)		(다)	
학과명 (모집인원)	학교수	학과명 (모집인원)	학교수	학과명 (모집인원)	학교수
회 화 과 (547)	13	서양화 과 (416)	11	환경조각학과 (70)	2
회 화 학과 (70)	2	서양화학과 (30)	1		
* 미술학과 (1,030)	21	동양화 과 (379)	11		
* 미술학과는 전공이 세분화 되어 계열분류가 포괄적 영역에 해당됨.		한국 화 과 (30)	1		
		한국화학과 (30)	1		
		조 소 과 (373)	11		
		조소 화 과 (30)	1		
		관 화 과 (40)	1		
		서 에 과	2		

〈표 2〉 적응미술계열 학과명

(가)		(나)		(다)	
학과명 (모집인원)	학교수	학과명 (모집인원)	학교수	학과명 (모집인원)	학교수
산업디자인과 (186)	5	시각디자인과 (150)	3	광고디자인과 (40)	1
산업디자인학과 (1,115)	26	시각디자인학과 (170)	4	살과디자인학과 (80)	2
산업공예과 (80)	2	공예디자인과 (60)	1	목공예과 (30)	1
산업공예학과 (70)	2	공예디자인학과 (80)	2	금속공예과 (70)	2
산업미술과 (270)	7	공예학과 (239)	9	도예과 (160)	4
산업미술학과 (270)	7	공예과 (239)	6	도예학과 (40)	1
응용미술과 (160)	4	공예미술학과 (90)	2	공예디자인과 (30)	1
응용미술학과 (120)	3	섬유예술과 (50)	1	요업디자인학과 (40)	1
생활미술과 (130)	3	섬유미술과 (30)	1	섬유디자인학과 (80)	2
장식미술과 (50)	1	섬유미술학과 (70)	2	의상디자인학과 (160)	4
(보다 포괄적인 학과명)			(보다 세분화된 학과명)		

〈표 3〉 학문계열 미술계열학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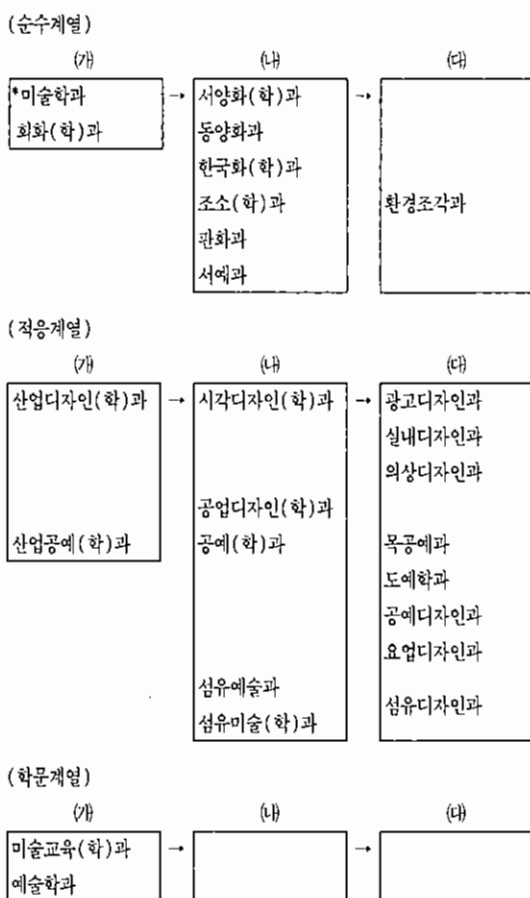
(가)		(나)		(다)	
학과명 (모집인원)	학교수	학과명 (모집인원)	학교수	학과명 (모집인원)	학교수
미술교육(학)과 (415)	14				
예술학과 (80)	2				

이나 '산업미술학'은 같은 개념이고 '산업미술학'이 보다 학문명칭에 걸맞다는 의미에서 연유한 혼란이다.

아무튼 이 두 가지 경우는 명칭의 적용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과목으로 간주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미술계열 학과는 명칭은 45개이지만 실제로는 26개에 불과하다(〈표 4〉 참조).

얼핏 보면 대수롭지 않은 학과명칭만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러한 표면적인 명칭의 혼란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답습화된 미술계열 자체의 잠재적 갈등이 엿보인다는

〈표 4〉 동일학과를 묶을 경우의 미술계열과



점이다. 그것은 곧 '실기'와 '이론'이라는 이분법적인 미술계 안에 누적되어 온 낡은 통념과 직결된다.

미술=실기=기능 혹은 기술이라는 고정된 통념은 미술학=이론=학문이라는 대립적 차원에서 미술에다 '학과'를 덧붙이기보다 '과'를 덧붙이길 선호한다. 이 점은 미술=실기=창조 혹은 표현이라는 다소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쪽에서 마찬가지로일 수도 있다. 아니면 역설적인 모순이지만 미술=실기일지라도 대학 안의 학문임을 강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학과'명칭을 선호하여 차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미술이 대학이나 대학원 속에서 전문학과로 공존하려면 '학과'명칭을 적용하길 주문하는, 미술=기술임을 믿는 일부 교육정책자의 통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표 1> <표 2> <표 3>을 일별해 보면 <표 1> (순수미술계열)에서 '학과'를 덧붙이고 있는 학교는 총 57개교 중 7개 학교에 불과하고 (미술학과 제외), 그것도 대부분 최근에 신설된 학과이다. 이에 비하면 <표 2> (적용미술계열)에서 '학과'를 덧붙이고 있는 학교는 107개 학교 중 66개 학교로 6:4의 비율로 '학과' 명칭을 선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또한 신설된 학과와는 무관해서 순수미술계열과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이 '과'를 덧붙이느냐 '학과'를 덧붙이느냐는 형식에서 오는 단순한 선호도의 문제라든 하든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교과과정의 틀 개선 없이 교육정책의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획일적으로 차용한다면 더더욱 문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앞서 예를 들었듯이 '산업미술과'와 '산업미술학과'가 엄연히 달라 '산업미술' 전공과 또다른 '산업미술학'이 분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과목인데 명칭에서 오는 이해관계나 선호도의 문제라면 이것이야말로 학과명칭을 통해서 미술계열 자체에 내재한 앞서와 같은 낡은 통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학과명에서 보이는 교과과정 영역의 범주

가 상호간에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표 1> <표 2> <표 3>에서 (가)→(나)→(다)로 학과명칭을 배열한 것은 필자 나름대로 학과명칭으로 보아 교과과정 영역의 범주가 보다 큰 것에서 점차 분화된 정도를 나누어본 것이다. 영역이 세분화되고 보다 구체적인 학과명칭은 그런 점에서 (다) 쪽이 될 것이다. 학과의 세분화가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것인가의 여부는 접어두고, 비교적 시대적 사회적 추세에 따라 빠른 쪽은 아무래도 순수미술계열 쪽보다 적용미술계열 쪽임은 물론이다. 순수미술계열 쪽에서는 거의 없는 편이다. 영역의 범주가 애매한 것도 순수미술계열(미술학과 제외)의 경우 거의 없는 편이다. 동양화과와 한국화과의 경우 실제로 명칭만 달리 했을 뿐 다루는 영역의 범주가 현재로는 같은 동일한 학과이다. 학과명칭에서 보이는 영역적인 범주의 모호함은 적용미술계열 쪽이 심한 편이다. (가) 쪽에 있는 학과는 (나), (다)의 영역을 거의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과명칭 자체로서 그 범주를 잡기 힘든 것이 많다. 산업미술, 응용미술, 생활미술, 산업공예, 공예 등이 그것이다. 적용미술계열의 경우 '산업'이 덧붙여진 것도 경제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인상이 짙다.

이런 와중에서도 <표 2>에서 보듯 시대적 사회적 추세에 맞게 디자인이나 공예분야가 보다 전문화된 명칭으로 세분화되고 있음은 그만큼 적용미술계열의 영역별 범주가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미술계열의 경우 대학의 특성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은 대부분 대학이 타대학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학과를 명칭만 달리해서 백화점식으로 개설하고 있는 데 있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사회적 수요, 전문성의 심화되는 상관없이 특정 대학을 모델로 해서 그것을 구태의연하게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70여 개의 대학 중 60여 개의 대학이 서양화과, 동양화과, 조소과 등 이른바 순수미술계열 학과를 일률적으로 개설하고 있음이 그 좋은 사례

라 하겠다.

이와는 대조되게 미리부터 대학의 특성을 분명히 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비록 대학은 아니지만 학과 개설이라 할지라도 그 연계성을 분명히 하여 특정 분야의 영역에 국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미술대학'이 아닌 '조형대학'으로 성격을 특성화한 것이 그것이고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섬유디자인으로 학과개설을 디자인 중심으로 한 것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도 분명히 확인할 수 없지만 '동양화'나 '산업디자인' 등 한 학과만 개설한 대학도 있다.

학과 중에는 여태껏 우리의 대학에 없었던 새로운 학과도 있어 주목된다. 관화과, 서예과, 환경조각, 환경조형학과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과의 신설은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과명칭에서 보이는, 앞서와 같은 표면적인 현상이 반드시 미술계열 자체만의 뜻있는 의지결핍이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특성있는 학과의 신설이나 보다 적절한 학과명칭의 개편이 필요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미술계열 자체만의 의지로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다. 과거 한때 산업미술, 산업디자인, 산업공예 등 학과명칭에 '산업'이 남용된 것도 학과명칭에 외태어는 허용치 않는다거나 반드시 경제성장에 부합되는 생산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인가 원칙의 확일적 적용 때문에 이에 부합되는 명칭에 걸맞은 것이 '산업'이었고 이러한 사례가 그대로 답습되어 왔다는 일설도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표 1> <표 2> <표 3>에서 드러난 학과명칭을 동시에 조감해 보면 보다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빠져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표 1> <표 2>에서 보이는 많은 학과명과 대조되게 <표 3>에서는 미술교육(학)과와 예술학과만 명시되어 있다. 물론 <표 1>의 순수미술계열, <표 2>의 적용미술계열, <표 3>의 학술계열은 필자가 나름대로 미술교육의 큰 영역을 교육부가 집계한 학과명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미술계열에서 '순수'와 '적용'은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심상표현과 적용표현 등에서 보이듯이 오래 전부터 대립된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류 관습이 '순수'는 미를 지향하는 작가배출로, '적용'은 미를 지향하지 실제 생활에 유용한 기능적인 전문가 배출로 받아들여져서 대학의 미술교육에도 학과개설이 이 두 가지 축이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소외된 것이 일반미술에서 말하는 미술의 이해, 감상영역이다. 순수미술과 적용미술이 이른바 '그리고' '만들고'…… 하는 실기 위주를 근간으로 하다 보니 이른바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미술교육의 또다른 측면이 대학의 학과로서 존립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도제교육의 관념이 덧붙여져서 미술=실기라는 등식에 이론=지식이라는 등식이 배타적인 영역이 되고 창조적인 감수성의 개발은 손재주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극단의 개인주의에 입각한 실기위주의 작가양산과 극단의 실제적 효용성만 실기로 포장하려는 대립적인 양극의 도식만 미술계에서 굳히게 된다. 이러한 양극의 도식은 창조행위까지 극단의 자유방임으로 치닫게 하거나 효용성 문제를 극단의 기술훈련으로 몰아 일체의 사고나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 미술의 특수성이라는 단순한 통념을 낳기 마련이다.

미술은 창작과정도 인정되는 만큼 이에 못지않게 창작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 결과에 따른 수용과정도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학에서의 실기가 일종의 창작연구과정이라면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창작에 관련된 분석과 비평은 미술

에서 필요한 이론적 탐색과정으로 학술연구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이 미술계열에서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 미술비평, 미술사, 미술행정, 미술경영, 미술재료학 등등이 미술계열에서 또다른 하나의 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나름대로 분류한 학술계열이다. 통칭 미술이론계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분야를 통해서 '이론 있는 실기, 실기있는 이론'이라는 실기와 이론이 상호배타적이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미술의 특수성을 일반인에게 보편성으로 열어주는 가교가 되기도 하고, 생활 속의 보편성을 역으로 미술의 특수성으로 열어주는 영역이 바로 이 분야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뒤늦게나마 '예술학과'가 개설된 것은 다행이다. 범주로 보면 미술계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음악, 무용, 건축까지 포함되어 '미술학' 이상의 것이지만 연계성으로 보면 더욱 필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표 3>에 나와있는 또 하나의 학과인 미술교육(학)과는 우리의 경우 16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어 해마다 500명이 넘는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미술교육이 양성보다 미술교사양성이라는 실제적 목적의식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미술교육학의 영역이 보다 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미술교육, 특수미술교육, 사회미술교육 등이 그것이다. 미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연구가 부족하고 미술교사의 현장연구만 있는 미술교육영역은 교사교육 자체에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그 위상이 전문교사로서의 여건으로는 불충분하다. 사범대학이 있는 종합대학에서 타교과목은 학과개설이 다 되어있는데 유독 음악교육과 미술교육만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국립대학인 경우 서울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범대학에 미술교육이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대학에서조차 미술교육학과가 개설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교사교육이니 사범대학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실상인즉 미술교사교육은 일부 미술학과에서 일정한 교직과목만 이수하면 주는 이른바 협동과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술교육학 자체의

전문성이 그만큼 실제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미술과 교육이 일체화되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미술'은 미술학과에서, '교육'은 교육학과를 통해서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미술교사교육이 이런 정도이니 아동미술교육, 특수미술교육, 사회미술교육은 대학의 미술교육에서 아예 소외되고 있다.

4

이상 '대학 미술계 학과명'이란 단일한 자료를 근거로 대학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보았거니와, 학과명칭의 이중적 혼란과 학과명칭이 보여주는 많은 학과의 영역적인 범주의 모호함은 일차적으로 미술계열 내부분계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미술에 통념적으로 잠재한 실기(창작)와 이론(학술)의 이분화된 대립적 갈등을 미술계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상호간의 특성없는 동일한 학과의 답습적인 개설은 미술계열 자체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의지가 결핍된 것이라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미술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이에 상응하는 학과명의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 나름대로 분류한 미술교육의 기본적인 계열영역과 이에 따른 학과개설도 미술계 자체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보편성 위에 최대한의 특수성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

김해성/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부산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개인전 3회, 남부전을 비롯한 각종 그룹전에 출품하였으며 부산미술대제, 가야미술대전, 부일대상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현대미술을 보는 눈』이 있고, 그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